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90년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ess in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 Focused on 1990's -

김경재* / Kim, Kyoung-Jae

Abstract

Contemporary society that is apt to be homogeneit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computer communication and mass-media desires to seek its own identity in native realm.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has endeavored continuous discussion and practice to keep its identity within the current tend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the alternative for genuine 'Koreaness' to analyse the variant trend of its characteristics 1990's. The variation of Korean society in 1990's that emphasize self-regulation and individual value has influence on the realm of architecture so much.

The cognition of 'Koreaness' has changed with center in the individual and small-size design group, not present accommodation of past, but continuous research to find archetype of tradition which can play a decisive role of linking present and future on the foundation of past. Many attempts and practical works that express 'Koreaness' in 1990's are performed in the area of residence works that reflect Korean emotion and life-style directly. This change can be an answer to solve the problem of peculiarity and universality in 'Koreaness'. After 1960's the main theme of 'Koreaness' was traditional architecture form, but because of the induction of Postmodernism and at once its reflection and critical attitude with limit of formal duplication, which lost its meaning. In 1990's, research for spatial form as Korean emotion and image has carried out and played an important part of original expression for 'Koreaness'

키워드 : 1990년대, 한국성, 전통, 변환

1. 서론

현대사회가 갖는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자신의 고유영역에서 아이덴티티를 찾고자하는 열망이다. 이는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무한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단일화·동질화되어 가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국가대로, 각 개인은 개인 나름의 개별성을 갖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21세기를 앞두고 한국사회는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여러 분야에서 한국적인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건축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왔다. 때로는 단편적인 연구와 작품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한국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또한 표현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적 단계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강봉진이 설계한 구국립박물관의 전통표현 논쟁과 부여 박물관에 대한 김종업·김수근 두 건축가의 지상논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통성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외래문화에 대한 비판 및 수호적 전승의 의미로서 전통에 대한 요구가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주로 공공건물에 전통성의 표현을 필수적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전통형식요소에 대한 분석적 해석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국제화와 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1980년대는 후반기에 올림픽게임 등 세계적 행사를 유치하면서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자하는 일환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전통성 대신 한국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한국성을 표방하는 각종 대형 건축물들, 즉 전주시청사,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올림픽주경기장 등이 정치·경제의

* 정희원,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논리 속에서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전 시대보다 더욱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가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배경에서 볼 때, 건축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다변화된 사회배경 속에서 건축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90년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에서의 한국성에 대한 변화된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성 표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작품분석에서는 90년 이후 완성된 작품으로써 건축관련잡지에 실린 작품중 작가 자신이 한국적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한 작품 위주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다.

2. 한국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한국성의 개념

1980년대 후반 이후 전통에 대한 논의에서 새롭게 부각된 용어가 '한국성'이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전통성'의 개념이 과거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정하고 통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성의 개념은 공시성과 연속성을 갖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¹⁾ 즉, 한국성이란 고정 불변한, 무시간적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 존재이다. 과거를 지향하는 것은 발전의 속도가 느린 듯 하지만 체험을 존중하여 안정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단절하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불안정 하며, 현실에 안주하여 현재의 상황에만 탐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대의 상황이 어떤 궤적을 밟아 이런 형태로 있으며 그러기에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한국성이 지향하는 바는 과거의 올바른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유용성 및 앞으로의 효용성에까지 의미를 부여하여 한국인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지속시키고자 함이다.

한국성의 탐구는 곧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²⁾, 이는 우선 한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³⁾ 한국적이란 가시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는 내재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 한국의 자연,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인의 생활방식, 한국의 멋 등등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질이 바로 '한국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일제시대에 타국에 의한 과거와의 강압적 단절에 대하여 체념하는 듯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상 몽고에 의한 고려의 지배과정 만큼 좌절할 만한 시기는 없었다. 그러나 한민족은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몽고의 문화들 중 우수한 것을 토착화시켜 자신의 삶에 유용하도록 발전시켰고, 또한 고려의 우수한 문화들을 몽고인들에게 전수시켜주기 까지 했다. 그러한 고려시대의 전통은 조선시대의 또 다른 전통이 되었고, 현재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고려인들의 타문화 유입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과 그에 대한 방안은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제시대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와의 단절 등도 결국 우리의 전통중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옳지 못한 전통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를 부정만 한다는 것은 발전적 측면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무의미하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화의 발생과 유입으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한국인만이 갖는 특수성을 탐구하여 이를 보편적 가치로 구성하는 일이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한국성의 궁극적 의미는 그 언어적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창출해낸 한국다운 것을 공유하고 생활의 부분으로서의 효용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2.2. 건축에서의 한국성

해방이후 근대화의 시기는 사상의 변혁기로서 제반 인식의 기틀을 서구화된 가치기준에 맞추어 새로이 정립하려는 요구가 강조되면서 전통적 사상과 생활방식이 서구적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전통과 현대의 모순개념이 혼재된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이후 지속된 전통논의는 이러한 갈등에 의해 파생된 이론적 모순과 실천적 오류의 범주에 연루되면서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입된 정치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정신보다도 물질의 현상에 집착한 편향된 시각을 강요함으로써 전통논의의 많은 혼적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오류를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⁴⁾

한국성에 대한 탐구는 비단 건축계에서만 행해지는 작업은 아니다. 비록 70-80년대에 전통에 대한 담론과 작업은 건축이라는 편중된 분야에 국한되어 나타나긴 했지만, 80년대 이후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의 예술 전반과 문학, 의복 등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성의 표현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기치 아래,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적 문화를 세계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고전적 모티프를 소재로 한 연극과 영화들, 사물놀이이라는 한국 고유의 장단과 악기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음악, 한복을 바탕으로 한국의 선과 색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의상, 한국적 전통과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미술작품 등 한국적 정서를 토대로 한 한국성의 표현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한영식, 상보적 이위구조로 본 현대한국건축의 한국성 표현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92,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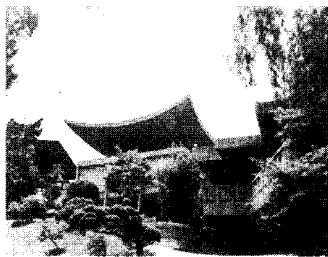
2)강혁,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3)-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한국성담론의 비판적 분석, 플러스, 1997.7, p.164

3)김성우,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1989.12.,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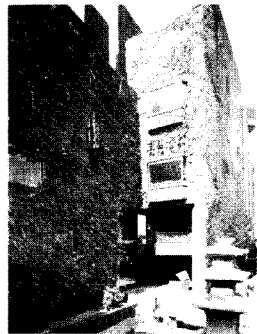
4)이인희·이중우,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이론화 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통권 82호, 1995.8, p.88

그러나 전술한 분야에서 한국성에 대한 탐구와 표현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적 정서를 토대로 하여 그 정신과 형태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건축에서 추구하는 한국성에 대한 추구하고 그 성격이 다르다. 즉,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적 성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근본적 기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의 한국성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시적 관점을 필요로 하며, 생활의 변화에 따라 공간과 형태의 기능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과거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한국성에 대한 사고를 고착하게 한다. 특히 건축분야에서의 한국성 표현은 타분야에 비해 개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것이다. 전통은 창작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회귀점은 아니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60년대와 70년대의 경직된 사회상황과 전통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표현이 진부한 상황하에서 건축된 김종업의 프랑스대사관과 김수근의 공간사옥 등은 한국성 표현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즉 과거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깨달음, 현재 상황으로의 주관적 재해석 그리고 현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독단적 미래로서의 전통기를 지양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선례라 할 수 있다. 프랑스대사관에 표출된 지붕형태의 한국적 조형성과 공간사옥에서의 한국적인 스케일감과 마당이라는 공간요소의 효율적 활용은 두 건축가의 과거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정신과 더불어 현대 한국건축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주한 프랑스대사관, 김종업, 서울, 1961



<그림 2> 공간사옥, 김수근, 서울, 1977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흐름은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계의 무한정한 정보는 혁신적인 컴퓨터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분야에서 세계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상반기 한국의 사회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시장개방의 압력,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한 지구촌 정보의 무한정한 유입, 30년만의 문민정부의 탄생과 개혁의 바람, 각 분야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 80년대 보다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의 다층화·다양화 속에서 문화전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업적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는 양상으로 경제적으로는 소비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⁸⁾ 정치보다는 경제이데올로기에 의해 문화가 영향을 받는 폭이 이전 시대보다 한층 커졌으며, 정치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진 많은 분야에서 자율적 분위기를 토대로 세계화를 향한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또한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찾아 세계 속의 한국을 표방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서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는 흐름을 띠고 있다.

3.2. 90년대 한국건축의 양상과 한국성

한국의 현대건축은 80년대를 기점으로 포스트 및 네오 모더니즘을 포괄한 탈근대적 경향, 하이테크 및 슬릭테크의 기술표현주의적 경향,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제주의건축의 기능주의적 경향 등의 보편적 상황과 이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의 지역성, 즉 한국성 모색의 경향 등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⁹⁾ 특히 포스트모던 건축에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인용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의 결여 그리고 한국이라는 도시적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구의 전통적 형태만을 그대로 모방한 소비성향주의와 일회적 유희성을 표현하는 경향을 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전통에 대한 개념과 논리 및 표현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한국성을 표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90년대 한국건축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맞물려 다원화·다층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건축 상황과 경향의 빠른 유입과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90년대의 시작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신선감이 상실되고, 서구의 새로운 사조인 헤체주의 건축이 대두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건축은 지방화에 따른 건축적 과제와 확대,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이후 한동안 논의가 없었던 전통성, 한국성에 대한 건축적 담론의 재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방식의 모

3. 90년대 한국건축에 표현된 한국성 변화양태

3.1. 90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21세기를 향한 격변하는 세계조류에 편승하여 개방과 세계화라는

5)이영한, 전통한옥의 이해와 현대주택설계의 자세, 플러스, 1998.1, p.89
6)요네다 아키라, 전통과 창조-공허한 추상, 또는 투명한 힘의 재현, 공간, 1997.10, p.145, 재인용
7)김광민, 건축형이상학, 태림문화사, 서울, 1994, p.252

8)박항섭, 한국 현대건축의 양태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7, p.41
9)이일형, 현대건축의 구성체와 본질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4, p.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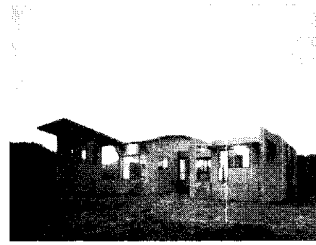
색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른 획일화된 세계 속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발견하여 아이덴티티를 갖고자 하는 욕구는 순수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에서 주를 이루는 정서적 범주를 뛰어넘어 실체적 기능을 갖는 산업디자인과 건축 등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성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90년대 한국건축은 서구화와 전통에의 관심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화가 곧 산업화를 의미했던 60~70년대의 상황에서 전통은 서구화와 반대되는 논리로서 이해되었고 이는 명분의 성격이 강한 직설적 재생경향의 흐름으로 이어진 반면, 80년대 후반 이후 현 상황은 서구화와 전통논의가 더 이상 반대의 논리가 아닌 동일한 가치 테두리 안에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¹⁰⁾ 한국성 표현에 있어서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은 전통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한국성은 서구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융해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합한 건축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건축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맞는 건축양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추상성을 지닌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한국인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90년대 이후 보다 강해진 개인적 가치와 성향은 타의가 아닌 자의적·자율적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성 표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김중업의 주한프랑스대사관이나 김수근의 공간사옥에서 나타난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개인적 탐구와 창의적 접근방법을 새로이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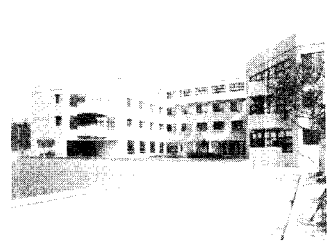
3.3. 90년대 건축작품에 표현된 한국성 분석

전통은 현재를 존재하게 하는 원초적 바탕이지만 현재에 재현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잇는다는 것, 즉 전통이 결여된 사회는 비문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통을 형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미학적 개념이 아닌 비판과 분석 그리고 현대와 미래에의 유용성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시각은 모방, 복제라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¹¹⁾ 한국현대건축에서 전통을 현대화하여 진정한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행해져왔다. 그러나 몇몇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시대적 상황에 의한 정치·경제논리 속에서 순수하게 건축가 자의에 의해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에 진입하면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게 된 건축분야에서도 자율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적 가치 추구하고 함께 한국현대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서 한국성



<그림 3> 탄현재-체나눔의 표현, 이일훈, 서울, 1993



<그림 4> 국립국악중고등학교-마당의 현대적 해석, 민현식, 서울, 1992

대한 담론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주체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한 것으로 이는 순수한 자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일훈의 체나눔의 미학,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 그리고 민현식, 최영집 등의 마당의 의미 등은 자의적 차원에서 한국성의 해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분석된다.

80년대까지 한국성 표현의 주를 이루었던 형태적 측면에 대한 건축가들의 사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신선감의 상실과 함께 서서히 공간적 조형 추구로 변환되기 시작하였다. 형태에 집착된 한국성 표현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소규모 설계집단에 의해 특성화된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의 한국성 추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가시적, 조형적 측면의 집중이라기 보다는 공간성의 재해석에 따른 추상적 개념¹²⁾을 바탕으로 마당과 채와 방의 구성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위계성, 다목적성, 중첩성¹³⁾ 등 한국적 공간이미지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성의 추구는 그것이 현재적인 가치와 미래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의 고유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고유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한국건축의 더 큰 부분인 건축적 본질과 보편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한국성이란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전통의 원형이 될 수 있고 또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세계 건축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한국성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보편성을 좀더 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인의 정서에 근거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내재해 있는 주거건축에서의 문화적 보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90년대 경제적 여유로 인한 생활의 풍요로움은 일반인들에게 생활의 일차적 터전임과 동시에 정신적 안식처인 주택에의 관심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주거건축에서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건축적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거건축은 바로 한국인의 얼굴이며, 그곳에는 한국인의 고유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실생활에 대한 도움과 미래에의 원형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10)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히치콕파와 전통의 잡동사니, 플러스, 1997. 7, p.157
11) 볼프강 뵘, 전통과 현대-옛것과 새것과의 관계, 플러스, 1997.10, p.185

12) 박항섭, 앞의 책, p.42
13) 김정신, 한국 현대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0호, 1997.3, p.14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90년대 한국성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여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다.

<표 1> 90년대 표현된 한국성 분석

건물명	용도	건축가	건축년도	한국성 표현		표현양태
				주제	주제	
여운현	주거시설	우경국	1991	공간	여백의 개념	여백에 의한 공간의 분절 및 수직 공간으로서 하늘과의 유기적 관련성 표현
연남동주택	주거시설	김영섭	1991	공간	마당과 담	도로와 마당을 통한 담의 의미를 도시와 연계, 마당에 의한 채의 연결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민현식	1992	공간	마당의 현대적 해석	마당공간의 전통적 미감을 현대화, 공간의 개방과 폐쇄를 이용한 내외부의 통합
유관순열사지하보호각	전시시설	김홍식	1992	형태공간	음양, 태극, 체와 용	독립공원의 정신적 지주 공간으로서 유관순열사의 지하옥사라는 의미를 상징화하는 공간적 질서 구축
오페라극장	공연시설	김석철	1993	형태	전통사물의 형상화	전통적 사물(가)의 직설적 재현에 의한 지붕형태의 상징성 강조
국립부여박물관	전시시설	한규봉	1993	공간/형태	유심공간 지붕형태	전통 목탑지 8각형 유구의 내부공간화 및 석조벽면과 지붕의 현대적 건축언어 사용
수출당	주거시설	승효상	1993	공간	마당의 비어있음과 혼용	공간의 핵인 마당은 정원, 거실, 전시장, 잔치집 마당 때로는 침묵하는 오브제로 사용되면서 역설적으로 무용의 공간으로 제시.
수성헌	주거시설	최영집	1993	공간	채의 분리, 마당, 초기집형태	초가집의 선을 현대재료로 표현, 마당공간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분할과 연결
옥련동다천당	주거시설	송광섭	1993	공간	마당, 전통 배치수법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비움과 채움, 있음과 없음, 모임과 체 나누기의 전통적 기법과 배치 활용
탄현재	주거시설	이일훈	1993	공간	채나눔의 미학	마당을 사이에 두고 채의 분리를 통해 공간의 전이와 채의 변화를 표현
관수정	주거시설	우경국	1993	공간	여백의 개념, 풍수사상	전통건축의 비움공간을 여백으로 표현
남한산성주택	주거시설	류춘수	1994	형태	전통의 복원	남한산성의 역사적 장소의 맥락을 기초로 한식기와집의 규정에 의해 설계
경기은행수원지점	업무시설	희림건축	1994	형태	삼부구성 전통 지붕 형태 모방	수원성과의 장소적 맥락성을 연계시켜 도시의 심벌로서 전통지붕형태를 모방
환기미술관	전시시설	우규승	1994	공간	전통공간 배치수법	장소적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전통적 배치수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택형이네집	주거시설	차운기	1995	공간형태	원형회귀 한국적 정서	땅이라는 자연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탈기성품적 주거로서 한국의 원형적 공간과 형태를 추구
장석교회	종교시설	최영집	1995	형태	전통건축형태언어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전통건축의 형태언어를 직설적 방법으로 상징화

<표 1>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90년대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양상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개념의 변환

90년대 건축을 이끌어 가는 주축은 대부분 해방이후 세대로 한글과 영어에 친숙해 있고 건축가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 세대들이 추구하였던 모더니즘의 규범 위에 자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였던 수사적 형식을 첨가하는 정도의 건축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 세대들이라 말할 수 있으며¹⁴⁾,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한국성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상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진반의 자율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적 전통을 현대적 해석을 통해 미래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모습을 보인다.

80년대까지 전통성에 대한 논의와 실제적 표현들이 과거의 유산에 대한 현대적 수용에 그쳤다면, 90년대에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통은 변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결코 과거에 이루어져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며, 또한 미래세계를 구축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지속성을 갖는 보편적 존재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성에 대한 표현을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질서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의 역사성과 창조성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해 새롭게 창조되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90년대의 한국성 구축을 위한 한 측면으로 인식된다. 90년대 전반기 한국성은 담론이나 논의보다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가의 인식체계가 형식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사고와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이나 소규모 설계집단에 의한 한국성 표현은 한국건축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가시화시키는 징후로 해석된다.

(2) 건축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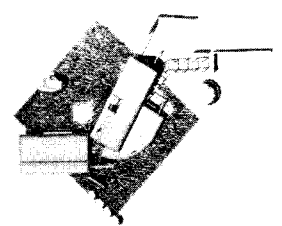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한국성'은 주로 정부의 주도로 공공건축물과 같은 대형 시설물에 표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서와 생활 양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축물이 주거건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로 주거건축에 있어서의 한국성 표현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 태도라 할 수 있다. 주거건축은 특히 그 이론과 실제에 있

3.4. 90년대 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변화

90년대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 속에서 문민정부의 출범,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 다소 안정적이면서 자율적인 분위기가 이어져가고 있다. 과거의 독재적인 정권 속에서 때로는 정치를 위한 전유물로도 전용되었던 건축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은 보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80년대에 진행되었던 한국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작품표현은 반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90년대의 귀중한 초석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90년대 상반기는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수출당, 승효상, 서울, 1993



<그림 6> 관수정, 우경국, 경기도 양평, 1993

14) 플러스문화사, 한국현대건축연감2, 3(1993-1995), 1996, p.10

어서 건축가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건축가들은 주거를 건축가의 사상과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구현된 하나의 원형적 결과로 인식하지만, 학자들은 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보편성의 산물로 정의한다.¹⁵⁾ 두 견해는 모두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건축은 문화적 고유성과 보편성을 지닌 건축가의 창의적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내재한 건축이다.

3.3절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성 표현에 있어서 주거건축으로의 건축유형 변화는 90년대에 나타난 특징중의 하나이다. 한국인에게 한국다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주거건축은, 특히 90년대 이후 수졸당, 여운헌, 탄현재, 옥련동 다친당, 만천재, 수성헌, 택형이네집, 학익재, 몽학재, 학익재, 등촌불이 등 건축작품에 명명된 명칭에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대규모 설계사무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 작품들에서의 한국적 이미지의 표출은 건축가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나름의 한국성 표현방식으로 비록 그 해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실험정신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주거건축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적인 건축물로 보이기 시작하여 다른 기능의 건축물과 같은 방법론으로 파악되어 가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적인 맥락에서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공간에 따른 덩어리의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로서 우리의 옛 것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해나감과 동시에, 한국전통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는 '마당'에 대한 현대건축에의 변용과 채의 분리 등은 한국성에 대한 감각을 외부공간에 확장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유형의 변화는 1986년부터 시행된 아천건축상¹⁶⁾의 수상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0년대에는 최영집의 수성헌(1993), 차운기의 택형이네집(1996) 등 두 개의 주거시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90년대 이전 관주도의 대형건축물에서 나타난



<그림 7> 수성헌, 최영집, 1993



<그림 8> 택형이네 집, 차운기, 경기도 광주, 1995

15) 김봉렬, 이 시대 우리 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실천적 이론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플러스, 1997.5,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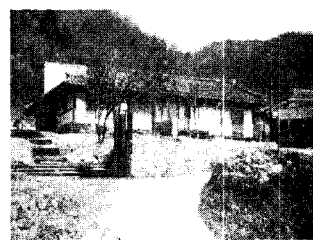
16) 아천건축상은 1985년 아천 김정화선생의 기금에 의해 1986년부터 시행된 건축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한국적 설계이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조화미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건축상 중에서 건축가의 특별한 의지를 요구하는 유일한 상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선정된 작품중 주거작품은 하나에 그쳤었다.

한국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자율성이 회복된 새로운 시기의 소규모집단에 의한 한국성 표현은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주택작품에서 작가 나름의 창의적 해석에 따른 한국성의 표현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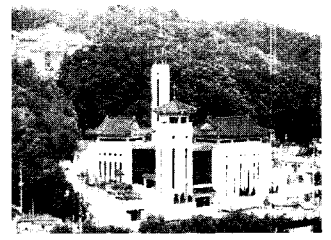
(3) 표현양태의 변화

1960년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전통에 대한 직설적 복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앞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신선감이 상실되면서, 한국성 표현의 양상은 형태에서 공간으로, 즉 피상적 문제에서 내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도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축물도 존재한다. 80년대까지 주로 형태에 집착된 한국성 표현은, 전통은 모방이 아니라 창작과 미학의 논리로 해석¹⁷⁾되어야 한다는 사고체계 안에서 단순한 외부형태의 모방보다는 형태를 포함하는 공간과 정서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전통건축에 대한 직설적 형태 모방의 수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한국전통양식을 재현하고 있는 남한산성주택이나 유관순열사 지하옥사보호각 등의 작품은 모사나 모방의 의미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경기은행 수원지점 지붕부분에 표현된 전통지붕곡면의 활용은 도시건축의 상징으로써 장소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장석교회에서 사용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적용은 지역적 맥락성에 근거한 형태의 복원적 측면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



<그림 9> 류춘수, 남한산성주택, 경기도 광주,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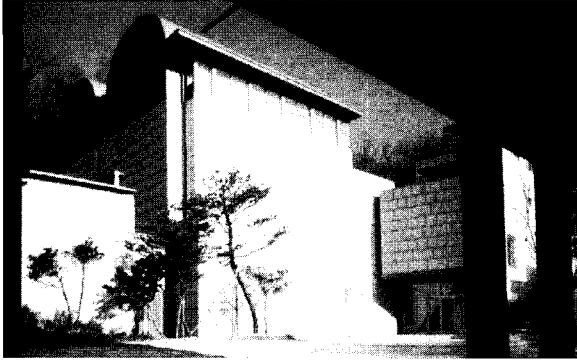


<그림 10> 장석교회, 최영집, 서울, 1995

로 전통적 사물인 것을 직설적으로 재현한 오페라극장을 포함한 상기의 작품들은 생활양식과 각종 시스템이 현격히 변화하는 현실점에서 과거에 대한 직설적 모방이나 복제는 단순한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생활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각각의 스케일과 비례체제 등의 변화에 따른 조형성 변화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을 추구하는 90년대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형태적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한국적 정서를 통한 한국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비어 있는 마당의 개념을 주제로 한 일련의 주택작품과 국립

17)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반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환경, 1988.6, p.98



<그림 11> 환기미술관, 우규승, 서울, 1994

국의 중고등학교, 자연과의 교감에 중점을 둔 어흘리 박물관, 채의 분리와 배치기법을 통해 지리적 역사성과 한국정서를 담고 있는 환기미술관 등은 직설적 형태모방의 수법보다는 은유적·유형적 표현과 내외부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한국적 이미지를 풀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21세기를 앞둔 세기말의 현상 중 하나는 컴퓨터와 통신 발달에 의한 정보의 무한정한 공급 그리고 그에 수반되어 정보매체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공유이며, 이는 극도의 다원화된 양상과 함께 역설적으로 획일화된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다. 90년대 한국 건축은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다원화·다양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한국적 정서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는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은 80년대 한국건축계의 수많은 담론과 실천을 초석으로 90년대에 들어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율성과 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소규모 설계집단을 중심으로 과거의 현대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대와 미래의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형으로의 전통을 탐구하고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양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내재해 있는 주거건축에서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도와 실제적 작품들은 한국성이 갖는 고유성과 보편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태도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성 표현의 주요 주제였던 형태에 대한 열망은 80년대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입과 곧이은 반성 및 비판, 형태복제의 한계 등으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90년대에 들어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로서의 공간형태가 한국성 표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통형태의 모방이나 모사로서는 한국성 구현의 해를 찾을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전통사상에 내재해 있는 이론적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유추 및 현대적 해석을 통한 올바른 한국성 표출의 시도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양상은 전통문화의 유기적 생명력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쇠퇴해버린 현시대에 있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원형이 될 수 있다. 한국성에 대한 올바른 표출을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본질과 현상 등에 입각하여 전통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전통과 현대 및 미래간의 상관개념들에 대한 일관성있는 해석작업을 지속하여야 하며, 한국적 정서의 현대적 시각화를 위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정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광민, 건축형이상학, 태림문화사, 서울, 1994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3. 플러스문화사, 한국건축연감1, 1992/ 한국건축연감2, 3, 1996/ 한국건축연감4, 1997
4. 박항섭, 한국현대건축의 양태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7
5. 이일형, 현대건축의 구성체계와 본질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4
6. 한상석, 한국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 표현에 관한 연구, 정주대 석사논문, 1997
7. 한영식, 상보적 이원구조로 본 현대한국건축의 한국성 표현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2
8. 안경환, 한국전통건축의 건축언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2호 통권 74호, 1994.12
9. 이인희·이중우,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이론화 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통권 82호, 1995.8
10. 윤도근외, 80년대 한국건축의 다원적 의사 검증, 플러스, 1989.12.
11. 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1)우리 것의 이해, 플러스, 1997.1/ (2) 문화창작현장의 한국성탐색, 플러스, 1997.3/ (3) 이 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플러스, 1997.5
12. 이영일 외 4인, 전통과 창조-일본의 경우를 통해본 현대건축의 전통성, 공간, 1997.12
13. 이영환, 전통한옥의 이해와 현대주택설계의 자세, 플러스, 1998.1

<접수 : 1998. 10. 27>